49회 신입생 워크샵 연출 인수인계서

연출:함동휘

이 인수인계서는 한달간의 짧은 기간동안 휴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올리기 위한 ‘워크샵’ 연출의 관점에서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대공연 연출의 경우에는 상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 참고해주세요

1.연출과 캐스트

1) 연습 전 충분한 준비

저는 연출 확정되고 나서 4월 중순부터 어떻게 연습을 해 나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연습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급선무가 캐스트 숫자에 맞는 대본을 정하는 겁니다. 확정은 아니더라도 후보라도 뽑아놔야합니다. 작품의 덩치나 캐스트 숫자에 맞춰서 연습계획을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품 후보를 정해 놓은 뒤에는 캐스트들과 미리 컨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연습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캐스트 한명, 한명 개인적인 연락으로 주기적으로 빠지는 날이 무슨 요일인지, 캐스트 정말 할건지, 연습 매일 하는데 정말 성실히 나올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이게 대공연 같은 경우는 연습기간도 길고 정말 방학을 바쳐서 한다는 걸 재학생 스스로가 알고있지만, 신입생의 경우는 극회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직 잘 모르기때문에 "캐스트는 꼭 성실히 연습에 임해야 한다" 라는 인식을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때려 넣어줘야 해요. 신입생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정도로 연습이 힘든지 몰랐다고 하면서 중간에 나가거나 하는 경우에 최악의 상황은 작품이 바뀌거나 공연을 못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연습 시작 전 연출의 사전 밑밥작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워크샵은 중간고사가 끝나자 마자 연습이 시작되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간 전 혹은 중간고사가 끝나고 연습 시작 전 기간동안 이러한 사전준비를 미리미리 해 두어야 합니다. 연습이 미리 시작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2)연습 계획 짜기

워크샵의 경우는 정말 공연을 올리기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학기중이라서 연습도 밤 밖에 못하고 팀플이나 과제 등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연습 계획을 철저하게 짜되, 상황에 따라 유도리있게 계획을 바꿀 줄도 알아야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연습이 시작되기 전 사젅준비 작업에서 최소한 주단위로 계획을 짜야합니다. 그리고 그 주 안에서도 몇일 까지는 기초 트레이닝, 몇일 까지는 대본 리딩 하기, 몇일 까지는 캐스팅 확정 등등 굵직, 굵직한 이벤트는 시간을 정해 놓고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워크샵같은 경우 첫째주는 아이스 브레이킹 && 기초트레이닝&&신체&&발성&&상황극&&독백 등등 기본 트레이닝을 합니다. 연습 첫째주가 정말 중요한 게, 이때의 분위기에 따라 공연 준비기간 전체에서 캐스트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특히 이 아이스브레이킹이 빨리될수록 캐스트들이 좀 마음의 벽을 내려놓고 친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연출진이 먼저 에너지를 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같은 경우에는 조연출님이 이 역할을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연출진이 먼저 에너지를 내주고 으쌰으쌰 해줘야 캐스트들이 첫 주에 따라올까 말까 합니다. 이것도 대공연같은 경우는 캐스트들이 알아서 에너지를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신입생 워크샵은 캐스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애 첫 주에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기초 트레이닝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체는 초반에 일부로 더 빡세게 하는걸 추천합니다. 어색한 분위기일수록 같이 땀 흘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빨리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를 한다는게 절대 쉬운일이 아니라는걸 신체나 상황극이나 독백을 하면서 캐스트가 공연과 연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간단해요. 둘째주는 대본 분석이랑 오디션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죽어라 장면연습만 하면 됩니다.(앞서 말한 것 처럼 몇일 까지 대본 확정&& 몇일까지 캐스팅 확정 같은 굵직한 스케줄은 미리 픽스해 놔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대본이 최대한 빨리 픽스가 되야 연습 진행하기가 수월합니다. 이 부분 역시 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중간고사가 끝나자 마자 4월 말에 대본을 픽스하고 저만의 작품으로 각색을 했습니다. 특히 각색을 할 때는 유의해야하는게 캐스트가 중간에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변수로 고려해야합니다. 저는 다행히 예상한대로 딱 맞아떨어져서 수월했습니다. 예상이 가능했던 이유는 연출이 계속 캐스트들이랑 초반에 컨택을 많이해서 였던것 같습니다.

3) 다음은 구체적으로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인데 이건 정말 연출이 누구냐에 따라 철저히 다른것 같아요. 연습 계획표같은 경우는 선배가 준 기본적인 정석이 있긴 한데 이건 연출이 사전준비를 하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정하고 밀고 나가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장면 연습을 하는 방법도 원래 <<1.대본을 먼저 깊게 분석 2.분석된 대본에 따라 행동의 이유를 찾기 3.장면연습을 하면서 연기해보기>>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한달밖에 없었기 때문에 <<1.대본을 먼저 간단히 분석 2.대사를 최대한 빨리 외우면서 자유롭게 장면연습 (에너지올리기) 3.대사를 다 외운 후 행동의 이유를 찾아 넣기>>의 순으로 바꿔서 했습니다. 행동의 이유를 찾는게 정말 어렵고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이것에 얽매이다가 공연 자체를 시간안에 못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워크샵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대사를 다 외우고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올린 다음에, 런스루가 가능할 때쯤 행동의 이유를 찾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연습 목표가 있었다면 공연 1주일 전부터는 런스루만 계속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1주일은 런스루를 해봐야 공연 때 큰 실수도 없고 캐스트들도 공연에 감을 잡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공연 초반에 빨리 빨리 대본을 확정 짓고 캐스팅도 확정짓고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방금까지 설명드린건 연습의 기초적인 틀이고, 구체적으로 (하루하루) 연습을 어떻게 할지는 거의 99% 연출의 연습 방향이랑 재량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기초 트레이닝도 연출이 캐스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방향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대본 리딩이나 장면 연습을 하다가도 기초 트레이닝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압축파일로 제가 소정 누나에게 받은 인수인계서 몇 개를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연출과 스텝

그리고 연출은 스텝애도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데요. 스텝부분을 케어할수 있는 조연출님이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 너무 캐스트 연습에만 치중할 경우에 전체적인 극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합니다. 캐스트 연습은 연습대로 진행하되, 무대디자인이랑 조명을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무대가 정해져야 조명이 정해지고 그 다음이 의소분, 음향 순입니다. 스텝같은 경우는 기획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시켜야 합니다. 또한 신입생 워크샵의 경우에는 스텝들도 자기의 포지션이나 역할을 잘 모른느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공연진 같은 경우는 팀당 멘토를 두었습니다. 무대는 무대팀만의 멘토로 진성이 형을 섭외 했었는데, 무대 스탭 일을 하면서 모르는 일이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팀 멘토에게 연락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팀마다 멘토가 있었는데 상당히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스탭일을 하기 전에 팀원과 멘토간에 워크샵을 진행해서 구체적으로 스탭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신입생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또한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